

가정 예배 모범

- 2020_09_20_장기중앙교회

매일성경 9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

▶ 함께 함께 기도 (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)

=>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,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.

▶ 함께 찬양 (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)

=> 너는 축복의 씨앗

▶ 함께 읽기 (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)

=> 창세기 47:27-48:7

▶ 함께 묵상 (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)

1) 야곱이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(29-30절)?

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(창세기 12:7; 13:14-17; 15:7-8; 17:8).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(창세기 35:12).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 되지 않았지만,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,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자신을 묻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.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.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뤄질 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합시다.

2)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(3-5절)?

요셉은 애굽 여인을 통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습니다. 아마도 요셉은 이방인을 통해 낳은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염려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핏줄로 받아들이고 거라고 선포합니다(5절). 실제로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두 지파로 인정되어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.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.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셨습니다.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합시다.

▶ 함께 나눔 (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)

▶ 주기도문 (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)